



선교사업을 행할 사명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16:15>

주 전 850년경에 아람왕 벤하닷은 친히 대군을 인솔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성은 외부와의 교통이 두절되고 보급로가 차단된 채 극심한 식량난으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참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어느날 저녁 4명의 문둥이가 남아 있는 부스러기를 모두 나눠 먹고 이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사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간들 성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바에야 우리가 가서 아람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열왕기하 7:3~4>

그리하여 그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야음을 이용하여 적진 사이로 숨어들어가 가까스로 그 천막 바깥에 이르렀

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의 진중에는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전차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왕이 우리를 치려고 했사람의 왕들과 애굽왕 들에게 값을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어둠을 타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식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버리고 진을 뒤에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문둥이들은 빈 천막에 들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 날뛰며 굶주린 맹수처럼 식량더미 위에 올라가 정신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만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수만명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저들의 수중에는 풍부한 식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문둥이가 새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고하자” <열왕기하 7:9> 하고 마음을 설레면서 이 좋은 소식을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하였던 것입

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요, 또한 사명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녀된 성도들에게 선교 사업을 행할 사명을 위촉하고 계십니다.

1.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야 할 첫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입니다. 이 4명의 문둥이는 현재 필요한 모든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찌기 저들은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풍부한 식량을 갖고 있었읍니다. 일찌기 죽는것 밖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가 이제 대망에 차 있었읍니다. 일찌기 슬픔과 낙담중에 있었던 자가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문둥이는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지게 된 것에 비한다면 그들 네 사람의 문둥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로 비교도 안되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썩어질 육신의 양식 문제가 해결되었거니와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문제가 해결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의 고통과 아랍 군대의 포위에서 해방되었거니와 우리는 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입었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 했으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

께 계시니 이 이상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우리는 남에게 전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문둥이들이 굶주려 죽을 수 밖에 없는 성에 가서 한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내 이웃과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2. 말해야 할 두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빵을 얻지 못해 멸망해가는 많은 남녀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들이 멸망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 곁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우리와 접촉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잠잠하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해 가는 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 친우, 이웃, 학우, 직장동료가 막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짐짓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끝으로 우리가 가서 말해야 할 이유는 만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고 네 문둥이는 부르짖었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죽음의 도성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위탁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아침내 민족의 종말적인 현실 앞에 교회는 그 존재 의의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제 2회 서울 서 스테이크 배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6월 6일 제 6와드 실내 체육관에서 스테이크 독신성인 위원회 주최로 제 2회 배구대회를 가졌다.

14개의 와드/지부가 참가한 이 시합은 9인제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열린 시합끝에 9와드가 우승을, 7와드

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응원상은 개봉지부와 안양지부가 공동으로 차지하였다.

당일 참석 회원은 약 180명 정도였으며 많은 와드/지부가 분리된 후 처음 가진 이 모임은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단결심을 심어주는데 충분했다.



민성희 어린이 1등상 수상

서울 서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의 민성희 어린이는 지난 6월 6일 한국음악예술 협회에서 주최한 제 5회 전국음악 경연대회 국민학교 1학년 피아노 부문에서 1등

상을 수상했다. 민성희 어린이는 민경복 형제와 장숙녀 자매의 장녀로서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어린이이다.



신간 서적 안내

가정 생산 및 비축의 원리

PGWE 1125K 값 400원

최근 여러해 동안 우리는 개인과 가족 예비프로그램에 대하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본 책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과 가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 및 재배의 간단한 방법을 여러 가지 작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비축할 수 있는 품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고 목록 작성법에서는 기본 비축과 비상비축, 확대비축, 식품 이외의 비축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원은 물론 교회 회원은 누구나 가정에 비치하여 참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책자 구입은 한국번역 출판부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대체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산 괴정국민학교 1학년 정청아 어린이

지난 5월 8일 부산 괴정국민학교 어머니날 행사에서 자매가 주역을 맡고 활동하는 모습(왼드레스)

현재 아버지 정상현형제(현직 부산직할시 체육회 운영과장, 주일학교 회장단)와 어머니 이언영자매(상호부조회 회장)의 따님으로 물몬의 자매로서 교회에서도 모범된 회원이다.



1979년 8월 5일자 조선일보 <일요화제> 난에 "어떤 부부애"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 기사는 현재 서울 스테이크 제 4와드의 70인이며 와드 신권회 교사인 이성대 형제와 그의 부인인 최 청자 자매님에 대한 기사이다. 여기에 그 내용 전문을 실는다.

어떤 夫婦愛

—서글 盲兒學校 李成大 敎사

逆境 닷바라지... 碩士學位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1)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盲兒들 꿈 심어준 "萬能敎사" 「진급講習」에도 함께 공부 "보는講義"는 夫人이 代讀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夫인인 아내에게 「盲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 아내의 눈이 멀어 버린 후에도...